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7월 19일**

기를 든 자 사62:10-12

인간은 원죄를 당한 후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롬3:10-12)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죽은 상태에 대한 설명을 깊이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영접을 해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접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의 증거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답도 반쪽 짜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인생을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확실하게 설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확실한 것은 이런 상태로 영접한 사람이 전도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원죄가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도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지가 잘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더욱 성경적 전도나 세계복음화 같은 단어는 근방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은 했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의 기능이나 누림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원죄를 완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는 그 날로부터 그의 평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며 마음에 그 언약이 꽂혀 그 복음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가슴에 살아 있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부터 입니다. 복음과 영접은 본래부터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인이 원죄이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았다면 언약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6:33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고 정말로 가슴 깊이 언약으로 들어와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확인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노방 전도의 실패의 한 원인일런지도 모릅니다

1. 기를 든 자

1) 성경이 지명한 7포인트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7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7포인트의 사람으로 지명된 첫번째의 사람은 남은자 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남은 자들입니다 (사6:13) 남은 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언약의 여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냥 순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순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냥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순례를 통하여 세상의 정복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사단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도 정복하고 선교도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 라고 하셨는데 이 “그들은” 3장에서부터 읽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에게 열어 주신 선교의 문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할 교회이고 조만간 그 증거를 보게 될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4)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흩어진 자입니다. 행11:19-21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로 준비하신 것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이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 이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라는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환점에 이 힘없이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5)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사60:6하나님의 파수는 영적인 파수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언약 잡은 기도로 지킵니다. 그의 의무는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6)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있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이 필요합니다. 정탐꾼은 현장에 파송되어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고 확신을 갖고 방향을 정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취득하는 자가 정탐꾼이며 영적 전쟁을 하는 전도와 선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7) 그 다음에 남은 포인트가 기를 든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를 든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멀리를 보고 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대로를 수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하나 하나 세밀하게 문을 찾고 열고 그리하여 준비된 백성들이 오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또한 이유 없는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므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회를 만들고 식사도 하고 Event도 기획을 하고 …..
8) 말씀을 따라 가므로 준비하신 응답도 누리고 예비하신 제자도 만나고 그리고 크게는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응답과 전도 문의 근원을 든든히 하고, 훈련과 2부 예배 메시지를 놓치지 아니하므로 교회와 함께 가고, 그리하여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면 될 것입니다. 허공에 뜬 큰 것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 앞에 있는 작은 것을 세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면 그것이 길을 닦는 것이 되고 대로로 바뀔 것이며 그것이 시대 앞에 기를 드는 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9)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현장 한 현장을 차분한 가운데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중에 그 방향에 대하여 7포인트로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그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시대의 중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인생 방향이며 응답의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